

고려해운

2년 연속 무사고, 무재해 달성

고려해운(대표 박정석)이 선박의 안전 운항으로 최근 2년 연속 무사고, 무재해를 달성했다.

이를 기념하여 고려해운은 10월 18일에 부산사 무소에서 축하 행사를 가졌으며 박정석사장이 참석하여 해상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고려해운 관계자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항 스케줄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선박을 최상의 조건으로 안전운항을 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아무런 인명사고나 재산사고가 없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고려해운의 무사고, 무재해 운항은 업계의 모범적인 사례로 고객들에게 서비스의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C&라인

중동 서비스 개시

C&라인(대표 유해기)은 10월28일부터 코파칸-제벨알리-카라치를 연결하는 중동지역 서비스를 개시했다. 동남아해운은 사명을 C&라인으로 변경했다.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의 일환으로 개설된 중동지역 서비스의 기항지는 부산을 기점으로 하여 상하이-치완-싱가포르-코파칸-제벨알리-카라치-싱가포르-치완 순이다.

이에 앞서 C&라인의 전신인 동남아해운은 지난 8월31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동남아해운이 발행할 주식수의 증액 및 2004년 이후 지속된 ‘적자회사’라는 나쁜 이

미지에서 탈피하고, C&그룹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이미지 구축 및 world-wide 해운선사로서의 도약에 적합한 ‘C&라인’으로 사명을 변경하는 안전을 주주 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C&해운

8만1,000톤급 벌크선 발주

C&해운(대표 임갑표 부회장)이 계열사인 C&중공업에 8만1,000톤급 벌크선을 발주했다. C&그룹 계열사인 C&중공업은 그룹 관계사인 C&해운으로부터 약 4,900만달러 규모(미화기준)의 선박 1척을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

C&중공업이 C&해운으로부터 수주한 8만1,000톤급 벌크선은 2009년말께 인도된다.

이로써 C&중공업은 그동안 그리스, 대만, 이탈리아의 선주사로부터 수주하는 등 지금까지 총 15억 5000만달러 규모의 선박 30척(옵션 4척포함)을 수주하게 되었다.

C&그룹 고위관계자는 이번 계열사인 C&해운과의 신규선박수주와 관련 “그룹내 해운물류선사와 조선계열사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첫번째 수·발주이다”며 “앞으로도 해운물류 및 조선시장의 경기동향을 감안해 그룹내 시너지 효과 극대화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그룹은 오는 2015년까지 해운물류사업분야에서 자사선 100척 확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중공업은 이와함께 최근 관계당국으로부터 목포 삼진공단내 제1조선소 사업부지 확충 인·허가를 획득하고 해수면 매립작업에 착수했다.

C&중공업은 사업장 확충등을 통해 삼진공단내 제1조선소의 연간 12척 건조능력(8만1,000톤급 기준)을 최대 24척으로 배증시킬 방침이다.



KSS해운

증권거래소에 상장



KSS해운(대표 윤장희)이 상장을 위해 주식 공모 청약 마감한 결과 205.14대 1를 기록했다. 이로써 KSS해운은 순조롭게 10월 26일 상장하게 됐다.

KSS해운은 지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기명식 보통주를 청약했으며 규모는 신주모집 16만 1120주와 구주매출 1만 2774주를 합한 총 17만 3894주로, 이중 우리사주로 총 주식의 20%인 3만 4779주가 우선 배정되었고, 나머지 13만 9115주중 3만 4779주(20.0%)는 일반 청약자에게 공모되었고 나머지 10만 4336주(60.0%)는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되어 공모됐다.

일반공모 첫날인 17일 청약 경쟁률은 6.43대 1을 기록해 좋은 출발을 보였으며 18일까지 최종결과 공모금액 113억원(3만4779주)에 2,318억원(713만 4520주)이 몰려 205.1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KSS해운은 발행제비용을 제외하고 총 109억1,571만원을 얻게 되었으며, KSS해운은 주식 청약을 통해 얻어진 자금을 케미칼 탱커선 2척(6,500DWT 및 3,850DWT)을 취득에 주로 사용할 계획이다.

3,850DWT의 케미칼 탱커는 일본에서 신조하는 방식으로 취득하고, 6,500DWT 케미칼 탱커는 중고시장에서 약 5년 정도의 선령을 가진 선박을 확보할 예정이다.

STX팬오션

중국과 인도 연결하는 항로개설

STX팬오션(대표 이종철)이 중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새로운 컨테이너 서비스를 개설했다.

STX팬오션은 10월15일부터 세계 유수 해운선사인 대만 에버그린(세계4위), 양밍 라인(세계 15위) 등과 공동으로 1500TEU급 5척을 투입, 중국-인도 지역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CSI(China Straits India)로 명명된 이번 노선은 세계에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가장 급증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지역을 환적 없이 직기항으로 운항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전한 운송에 대한 하주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전 세계에 걸쳐 컨테이너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는 에버그린 등과 공동 운항함으로써 효과적인 신규 시장 확보는 물론 최적화된 고객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최대 벌크선사인 STX팬오션은 최근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컨테이너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총 29개의 항로를 운항중인 STX팬오션은 이번 중국-인도 직항 서비스에 이어 연내 2,500TEU급 5척이 투입되는 한국-중동 직기항 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아시아 권역 서비스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STX팬오션 관계자는 “2005년 컨테이너선 사업을 신성장 전략사업으로 채택한 이후 매년 100% 이상의 매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고, 선대확충과 해외 네트워크 및 서비스망 확대 등을 통해 컨테이너선 사업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의 기항지는 상해-닝보-홍콩-싱가폴-나바샤바-콜롬보-싱가폴-파시르구당(말레이시아)-람차방(태국)-홍콩-상해이다.



태영상선

일본 콘솔서비스 제공

태영상선(대표 박영안)은 PGI와 공동으로 인천항 발 일본 주요지역을 잇는 콘솔 서비스를 개시했다.

인천항과 도쿄, 요코하마 등 일본 주요 항만간 정기컨테이너 항로를 운영하고 있는 국적선사인 태영상선은 LCL 카고 전문 운송업체인 (주)피지아이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지난 9월17일부터 인천항 출발 일본행 콘솔 서비스(Consolidation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항에서 처음 제공되는 이번 서비스는 일본과 무역을 하는 수도권의 중소형 화주들에게 물류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LCL 카고의 일본 수출을 위해 부산으로 화물을 보내야했던 사업자들은 인천항을 이용할 경우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태영상선과 피지아이는 인천항 내항 2부두에 위치한 우련통운의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를 화물 작업기지로 하여 현재 주 3항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인천-도쿄-나고야-요코하마 항로를, 매주 일요일에는 인천-고베-오사카 항로를 서비스한다.

한편, 태영상선은 10월1일자로 2007년도 하반기 직원 정기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과장 : 방명환(인천사무소) △대리 : 정영란(경영기획팀) △계장 : 김수현(경영기획팀), 최정희(재래선영업팀) △6급 : 강은경(인천사무소)

(주)한진

통관취급법인 면허 취득

(주)한진(대표 이원영)은 통관취급법인 면허를 취



득해 10월15일부터 수출입화물에 대한 통관 업무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한진은 고객 및 화주에게 수출입 물품의 통관 규정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수출입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는 국제택배, 항공포워딩 부문 통관 수행 안정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향후 포장이사, 글로벌 3자물류, 해상특송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진은 10월18일, 19일 양일간 대전종합터미널에서 각 지점 교통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교육에서는 사고 사례 및 사고 처리 방법, 심폐소생술 및 교통사고 발생시 응급대처 방법 등의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점소별 교통사고 현황 분석을 통해 전직원이 무사고 운동 정착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진해운

미 동부지역 전용터미널 설립

한진해운(대표 박정원/www.hanjin.com)이 미국 동부지역에 최첨단 전용터미널을 설립한다.

한진해운과 잭슨빌 항만청은 10월18일 오후 5시 한진해운 본사에서 ‘한진해운 잭슨빌 전용터미널



(Hanjin Shipping Jacksonville Container Terminal) 설립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이번 MOU 체결에는 '존 페이톤(John Peyton)' 잭슨빌 시장이 프레드릭 페린(Frederick R. Ferrin) 잭슨빌 항만청장과 함께 직접 참석하여 박정원 사장과 본 MOU에 서명하였다. 미국 동부의 플로리다주 잭슨빌항에 위치할 한진해운 전용터미널은 2개 선석이 구축되어 연간 약 100만 TEU의 물량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1년에 개장할 예정이다.

금번 MOU 체결에 대해 박정원 사장은 "2015년 완공 예정인 파나마 운하 확장과 선대 대형화 추세에 따라 미국 동부지역의 전략적 물류기지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며, "미 서해안 3개 전용터미널에 추가하여 미국 동부지역에 전용터미널 설립함으로써, 미국 동안지역에 보다 안정적인 선석을 확보함은 물론 카리브해(Caribbean Sea) 지역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해상물류 허브(Hub)를 구축하게 되어 향후 물류비용 절감, 운항 정시성 제고에 따른 고객 서비스 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타 해운회사의 물량을 유치하여 터미널 운영 수익도 창출하는 등 다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진해운은 현재 총 11개의 전용터미널(국내 4개와 해외7개)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에 네덜란드 로테르담 전용터미널 그리고 올해 3월에는 베트남 터미널 개발을 위한 MOU를 각각 체결하였으며, 향후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지중해 등 유럽지역에 전용터미널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잭슨빌(Jacksonville) 전용터미널개발계획에 따르면, 선석길이는 750m(2개선석)에 총면적은 약 170에이커(약 68만평방미터)이며, 컨테이너화물 처리능력은 100만TEU 수준이다. 이 터미널은 오는 2011년 초 개장목표로 건설된다.

잭슨빌(Jacksonville)은 미국내 14번째로 큰 도시로 플로리다(Florida)주 북동부 두블시(Duval County)에 위치, 대서양에 접한 심수항과 철도망을 보유한 교통의 요지이다.

한편, 한진해운의 전용터미널은 총 11개로 국내에 4개(감천, 감만, 광양, 평택), 해외에 7개가 있다. 해외터미널의 경우 미국의 롱비치(Long Beach, 오클랜드(Oakland), 시애틀(Seattle), 일본의 도쿄(Tokyo), 오사카(Osaka), 대만의 카오슝(Kaohsiung), 벨기에의 안트워프(Antwerp) 등이다.

현대상선

한국 문화체험 행사개최

현대상선은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 현대인재개발원에서 전 세계 14개국, 60여명의 외국인 직원들을 초대해 사물놀이, 풍물 등을 직접 체험하는 '한국 문화체험' 행사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회사측은 1800여 명 외국인 직원들과의 스킨십 강화를 위해 해외 현지직원 봉사방문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국 법인에 근무 중인 나타판 씨는 "장구, 북, 팽과리, 징과 같은 생소한 악기와 리듬에 잠시 당황

했지만, 열심히 따라하다 보니 '딩딩 덩 따 쿵따' 하는 장단에 '얼썩'라는 추임새가 절로 입에 붙었다"고 전했다.

현대상선 노정의 사장은 "글로벌 기업이라는 특성상 국내 직원 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현지 직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해외 현지직원들이 현대상선과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결속력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마다 특색 있는 달력을 제작해 주목을 받아 현대상선이 올해는 해외법인과 지점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바다사진 컨테스트'를 실시해 내년도 달력을 만들었다.

이 달력에는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선박, 고드름이 얼어붙어 있는 선체, 선상에서의 훈련장면, 바다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석양 등 직접 배를 타 보지 않고는 평소에 접할 수 없는 바다의 생생한 장면들이 담겨 있다

현대상선은 10월 중순부터 이 달력을 해외에 조기에 배포해 마케팅에 들어갔다.

현대상선은 "200여 작품이 컨테스트에 응모해 이중 우수작 12편을 선정했다"며 "배에 승선한 직원들이 바다를 찍은 사진 또는 해외지점의 외국인 현지 직원들이 보내온 선박이나 항만 풍경 등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어 색다른 사진을 감상하는 재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컨테스트에 출품된 직원들의 사진이 전문가들의 작품 못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홍보물에 직원들의 작품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달력은 미주, 유럽, 일본, 홍콩, 국내에서 사용될 10종류로 총 수량은 10만부에 달하며, 전 세계 4개 본부, 25개 현지법인, 73개 해외지점에 뿌려진다.

이렇게 각 영업조직에 배포된 달력은 고객, 투자

자, 유관 단체 등에 전달되어 내년 한 해 동안 현대상선의 '대표 홍보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흥아해운 한국-중동항로 개설

흥아해운이 유럽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20년만에 중동시장에 진출했다.

흥아해운(대표 이윤재 회장)은 10월말부터 한진해운의 선복을 이용해 한국-중동서비스를 개시했다. 당분간은 수출서비스만 실시하게되며, 부산·중국에서 중동을 격주로 묶는다. 중동측 기항지는 KHOR FAKKAN, DUBAI(JEBEL ALI), 카라치(파키스탄) 등 3개항으로, 흥아해운으로서는 20년만에 실시되는 중동서비스로 사실상의 첫번째 중동서비스라는 평가다.

흥아해운은 한진해운이 운영하는 2,000TEU급 3척이 투입되는 바이위크리서비스의 선복을 빌리게 되며, 서비스 1선은 10월27일 부산 출항의 'Hanjin Qingdao'호부터다. 이 서비스는 당분간 격주로 운항되다 선복을 추가하면서 주간서비스로 전환될 예정이다. 중동서비스를 주간으로 운항하기 위해서는 최소 5척의 선박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항로는 한진해운이 10월27일부터 개설하는 FMS노선(중동노선)으로 서비스루트는 BUSAN -SHANGHAI -CHIWAN-SINGAPORE -KHOR FAKKAN -DUBAI(JEBEL ALI) -KARACHI-SINGAPORE -CHIWAN-BUSAN-SHANGHAI 순이다.

흥아해운측은 "20년전 중동시장에 진출했다 철수한 바 있다"고 밝히고, 이번 중동 3개항서비스는 유럽진출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포해양대학교 대학본부 신청사 개청식



목포해양대학교(총장 신철호)는 2007년 10월9일 대학본부 신청사 개청식을 거행했다.

이번 개청식에는 목포시장, 목포대학교총장, 세무서장, 서해지방해양경찰서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Tokyo Marine(주) 사장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하였다.

특히, Tokyo Marine(주)에서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하여 최첨단 e-강의실과 케미컬 탱커 실습실 각 1실을 지원한다는 약정서를 목포해양대학교에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목포해양대학교 대학본부 신청사신청사는 연면적 5,656㎡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66억 8,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2004년 4월에 착공해 3년6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되었다.

대학본부 신청사는 총장실과 행정실, 전자계산소, 산학협력단, 어학실, 전시실 등으로 사용된다. 특히 4층을 English Zone으로 지정하고 최첨단 교육시설을 갖춘 음영음향독서실, 어학실, e-어학강의실 등을 설치하였으며, 전담 원어민 교수 3명을 배치하였다. 더불어 English Zone에서는 모든 대화와 수업을 외국어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학생

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목포해양대학교는 구본부 건물에도 학생들을 위한 최첨단 e-강의실을 추가 설치를 계획하는 등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외국어 교육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국제물류투자펀드에 1,000억원 출자

부산항만공사(BPA)가 해외 항만·물류센터 개발 등을 위해 정부가 조성 중인 국제물류투자펀드에 1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BPA가 동북아 환적화물 유치기지로 삼기 위해 개발을 적극 검토 중인 러시아 극동 항만은 물론, 남북경협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는 북한 나진항 개발의 지원 자금으로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BPA는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매년 150억~250억원씩, 모두 1000억원을 국제물류투자펀드에 출자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출자안은 10월 19일 개최되는 항만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이 펀드는 정부와 항만공사가 3000억원을, 금융권과 연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1조7000억원을 각각 출자해 2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산업은행과 국민·수협은행이 각각 1조원씩 나눠 운용하게





된다.

BPA는 먼저 러시아 연해주 자루비노항과 나호드카항 개발에 이 펀드를 활용, 현재 두 항만에 소규모 컨테이너 선석을 개발해 중국 동북 3성과 러시아에서 나오는 환적화물을 부산항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부두정비 본격 착수

울산항만공사(UPA·사장 김종운)는 울산항 본항 부두의 공용도로와 야적장에 대한 전면 보수공사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차량 및 장비의 안전통행 확보와 화물 야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 16일 시작돼 12월14일 끝난다. 전체 공사 면적은 5638㎡이며, 사업비는 1억6,000만 원이다.

그동안 울산항 본항 공용도로와 야적장은 대형 차량의 빈번한 통행 등으로 많이 파손돼 통행과 하역에 불편이 초래됐으며 도로 파손에 따른 소음과 분진도 발생해 왔다.

울산항만공사팀 관계자는 “이번 정비 공사가 마무리되면 항만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울산항의 대외 이미지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순직선원 합동위령제 거행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희성)은 10월19일 부산 영도 동삼동 소재 순직선원위령탑에서 제29회 순직선원 위패봉안 및 합동 위령제를 거행했다.



많은 유가족과 연맹 조합원 및 관계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날 순직선원 위패봉안 및 합동 위령제는 오전 11시 정각 부산항에 정박한 모든 선박들이 추모의 뜻으로 기적 장성 1발을 시작으로 개식선언, 위패봉안, 종교의식, 추도사 등의 순서로 순직선원들의 영령들을 추모했다.

매년 실시하는 순직선원 위패봉안 및 합동 위령제 행사는 해양개척의 용지를 품고 오대양에 도전하였다가 불의에 유명을 달리한 순직선원의 영령을 봉안하고 그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1979년 2,279위의 위패봉안을 시작으로 금년 58위를 포함 한 총 8,872위의 위패가 봉안되었다.

이 행사의 주관단체는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선주협회, 한국원양어업협회, 한국선박관리업협회,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기사협회 등 8개 단체이며,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후원했다.

한국도선사협회

제1회 한·호 도선사 간담회 개최

한국도선사협회(회장 이귀복)는 지난해 한국?호주 양국 도선사간 정보교환 및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협조, 도선기술 향상과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체결된 한·호 도선사 양해각서(MOU)의 내용에 따라 지난 10월17일, 18일 양일간 제1회 한·호 도선사 간담회가 서울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개최했다.

양국 도선사간 친목도모를 겸한 이번 간담회에는 호주도선사협회 측에서 Rory Main(호주도선사회장), Steve Pelecanos(브리즈번도선사회 회장, IMPA 부회장), Peter Mckeown(멜번 도선사), Peter Liley(브리즈번 도선사)가, 우리협회 측에서는 이귀복 회장, 옥덕용부회장(인천항), 김병우 부회장(여수항)을 비롯하여 전국 각 도선사회에서 총 22명의 도선사가 참석하였다.

첫날 워크숍에서 우리협회 이귀복 회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이번 간담회의 일부인 워크숍이 앞으로 양국 도선사들의 도선업무 수준 향상을 위한 소중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 하면서, “2009년 호주에서 개최될 모임에서는 오늘의 워크숍이 밑거름이 되어 한층 발전된 한국의 도선제도를 소개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 시간에는 ‘도선의 현대화’ (Rory Main), ‘브리즈번 도선사회의 역사’ (Steve Pelecanos), ‘브리즈번도선사회의 안전관리시스템’ (Peter Liley), ‘선교자원관리’ (Steve Pelecanos) 등의 내용으로 호주도선사 측의 발표가 있었으며, 우리협회 측에서는 ‘한국 도선제도에 대한 소개’ (여수항 황성현 도선

사) 및 ‘브리즈번과 부산의 도선제도 비교’ (부산항 김수룡 도선사)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호주에서 개발한 BRM(선교자원관리)와 선박조종 시뮬레이터를 통한 도선업무의 기준 마련, 도선기술 향상과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호주도선사협회의 방안과 우리나라 도선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집중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다음날 저녁 환송만찬 행사에서는 해양수산부 문해남 해운물류본부장이 참석하여 “한국·호주 도선사들의 도선기술 향상과 우호증진을 위한 이번 간담회가 성공리에 개최된 점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 양국 도선사협회가 더욱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2년마다 양국이 번갈아 개최할 예정인 한?호 도선사 간담회는 우리나라 도선업무의 발전은 물론 호주도선사협회와의 지속적 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양국 도선제도의 발전과 해양안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화주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사장 : 정이기)은 10월 18일 GS칼텍스 등 여수산단 11개사의 물류 담당자를 초청하여 광양항 홍보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공단이 올해 수립한 전사적 마케팅 대책의 일환으로 광양항의 배후권역에 위치한 여수산단의 물류담당자를 광양항으로 초청해 이루어졌다.

이날 광양항 홍보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공단은 광양항 개발 및 운영현황, 활성화 대책 등을 소개

했다. 화주들은 광양항에서 시행중인 항만마일리지카드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어 최근 준공된 3단계 1차 컨테이너부두와 월드마린센터,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견학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업체 관계자는 “석유화학시장의 활성화로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선사 라인 증설 및 광양항 홍보를 주문했다.

한편, 여수국가산업단지에는 전남 동부권의 산업동맥으로 GS 칼텍스와 LG화학, 여천NCC, 한화석유화학 등 216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한국해양대학교

국제 VTS세미나 개최

한국해양대학교(총장 김순갑)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한·중·일 공동해역에서 해상교통 데이터 및 해상안전정보를 교환·공유하는 해상교통관제망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VTS세미나(A New Concept of VTS : Global Perspectives)’를 10월23~24일 부산 BEXCO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은 해상교통량이 복잡한 항만부근과 좁은 수로 등에 설치해 오가는 선박을 감시하는 한편, 해상안전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항행보장과 효율적인 항만운영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 포항항에 처음 도입 후 14개 무역항만과 진도 연안에 설치돼 선박안전운항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선박 안전에 대해 새로운 통신 기술 발달로 지역항만의 해상교통관제에서 벗어나 인접해역 센터 간 정보를 연계 공유하는 광역 해상교통관제시스템으로 확장하고 인근국가 간 인접센터의 정보를 교환·공유하는 등 글로벌화 하는

추세이다.

지난 5월 중국연안에서 골든로즈 호 충돌사고가 발생한 후 국내 해운업계에서는 동북아 해역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국가인 중국, 일본과 해상교통 데이터 및 해상안전정보를 교환·공유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그 대책으로 인접국가간 해상교통관제망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연안의 인접 센터 간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는 광역 VTS를 운영하고 있는 호주, 이탈리아 등의 전문가와 핀란드, 러시아, 에스토니아 3국 공동해역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글로벌 VTS 운영에 대해 핀란드 전문가가 구축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전병조 안전관리관은 극동지역인 한·중·일간의 광역 VTS망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방안을 발표하는 등 중국, 일본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과 AIS(선박자동식별장치) 구축 운영방안의 시안을 발표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남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세미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이정환)은 10월8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종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종구 수협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의 후원으로 열리며, 최근의 남북정상 회담과 맞물려 향후 해운, 항만, 수산, 해양 부문에서 남북한 간의 실질적인 협력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세미나 제1부에서는 ‘남북한 수산 부문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세부

적으로는 서해공동어로수역 지정과 관련하여 각종 협력사업과 북한의 수산업 지원 방안, 그리고 북한 수산의 대중국 의존 탈피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세미나 제2부에서는 '남북한 해운항만물류 부문 협력방안'을 주제로 해주항 활용 및 항만배후 경제특구 건설, 해주직항로 개설, 골재채취 등 한강하구 공동이용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이 두 부문은 향후 남북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데 실질적인 추진정책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정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이번 '남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세미나'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공유 및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 향후 남북한 해양수산 협력사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의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사법규 특별강좌 실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박찬조)은 직원의 자질 향상을 통한 대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최근 8차례에 걸쳐 해사법규 특별강좌를 실시했다.

직원들의 자질 향상 및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된 이번 특별강좌는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해상교통법, 어선원 환경, 통신 등 국내법과 STCW 협약, MARPOL 73/78 및 PSC, SOLAS, 국제해사기구 소개 등 국제법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이번 특별강좌는 국제적으로 관련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연수원 교수진이 각 분야별로 강의를 담당하였으며, 강좌별로 90분의 강의와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해사법규 특별강좌를 통해 연수원 직원들은 국내법 및 국제협약에 대한 지식을 한층 더 습득함으로

써 연수원을 찾는 고객에게 더욱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연수원에서는 고객에게 더욱 더 전문적이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2007년도 경영혁신워크숍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사장 이용우)은 10월15일, 16일 양일간 경기도 양평 대명콘도에서 2007년도 경영혁신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혁신성과의 종합점검과 현재 추진중인 혁신과제의 성공적 마무리에 필요한 혁신동력 유지방안을 모색하고 혁신리더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본부 각 부서 및 지부별 혁신리더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워크숍 행사는 이사장과의 대화의 시간, 주제별 분임토의, 명사 초청강연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정부의 혁신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해양수산부 최명범 서기관이, '삼성전자의 혁신사례'라는 주제로 정호진 삼성전자(주) 혁신단장이 초청되어 강연을 실시하였으며, 혁신인력개발 등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들로 내실 있는 분임토의가 이루어 졌다.

또한 첫날에는 '2007년도 제2차 경영혁신전진대회' 행사를 2007년도 경영혁신워크숍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혁신리마인드 행사를 가졌다.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현재 해양환경관리공단 출범이라는 큰 과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전진대회를 통해 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한발 더 나아가 혁신을 주도하는 선두 주자로서 자리매김을 공고히 할 것을 다짐하였다.